

韓國老年學研究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1997, Vol. 6, 51-66

부양 및 효에 관한 노인의 가치관 연구

Value Orientations about Caregiving and *Hyo* of the Elderly

김경신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목 차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결 과
- V. 논 의
- 참 고 문 헌

I. 서 론

가치 혹은 가치관의 문제는 그것이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 주고 나아가 만족감이나 행복감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구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김경신 교수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에게든지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나 극히 중요한 것이다. 개인적 뿐만 개인적 뿐만이 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치관의 문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사회의 공동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며, 그 사회의 각종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

오늘날 한국의 가족은 형태 면에서 뿐만 아니라 가치의식의 면에 있어서도 신구 전환의 과도기적 단계에 처해 있어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가치 사이에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 기성세대의 갈등은 정리되지 못한 채 새로운 세대에게 전이되고 있으며, 새로운 세대는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이중 삼중의 가치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현재의 노년 세대는 평생에 걸쳐 가치관의 변화를 겪어 온 세대이며, 전통적인 가치교육 속에서 성장하여 왔지만 신세대 가치의 도전을 받고 있는 갈등적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겪고 있는 가치갈등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들 가치 중에서도 노인문제나 세대관계와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부양과 효에 관련된 가치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노인문제의 발생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노인문제 중의 하나가 노인부양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가족 부양이 일반화되던 전통사회로부터 근대화 과정을 통해 가족구조가 변하면서 전통적인 효의 개념이 쇠퇴하였고, 더불어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하면서 노인에 대한 부양문제의 해결이 사회적 과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일찍부터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발달한 서구사회와 달리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아직까지 전통적인 가족주의, 또 이것이 확대된 집단주의 속에서 개인의 존재가치를 추구하여 왔기 때문에 노년기의 독립적인 삶에 대한 가치관도 확고히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아직까지 유료 양로원이나 노인 홈 등이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정책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노년기 세대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일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과 의지의 실현이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관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노년기의 부모자녀관계에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부양보다 정서적 부양 및 동반자 의식이며 (Brody, 1981),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도 그들간의 정서적 유대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tkinson 등, 1986; Krause, 1987; Mercier 등, 1988). 또한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자녀와의 동거여부보다도 가족내 역할과 자녀와의 유대관계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조병은, 1990). 따라서 부양과 효에 관한 전통적 가치관을 현대적 관점에서 어떻게 승화시키느냐에 따라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격변기에 처한 노년세대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은 노인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양과 효에 관한 노인세대의 가치관의 흐름을 파악해 보는 일은 매우 필요하며, 또한 이를 통하여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바람직하게 형성시킬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세대가 인지하는 부양 및 효에 관한 가치관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해 보고 가치관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관련 요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가족가치관 변화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가족과 사회의 변화에 노인들이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문제로는 첫째 부양 및 효에 관한 노인의 가치관의 일반적 경향을 보며,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가족관계 변인에 따라 부양 및 효에 관한 노인의 가치관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부양에 관한 가치관

노인부양은 크게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으로 나누고, 사적부양은 다시 자기부양과 가족부양의 두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서병숙, 1991). 가족부양은 자녀와 동거하면서 부양받는 형태와 독립세대 혹은 시설에 수용되어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형태로 나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노인부양 형태가 변화하고 효에 대한 의식도 변화하고 있다. 즉, 장남이 아닌 차남이나 딸과의 동거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장남만이 노부모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도 많이 약화되고 있다. 1970년대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의 부양이 절대적으로 의무시되는 한편 국가나 사회의 책임도 명시되고 있어, 부모 부양의식이 이미 변화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이영하, 1975), 실제로 1980년대 이후 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5)의 조사에서는 장남부부와 동거가 38.4%, 장남이외 아들과의 동거가 12.4%, 딸부부와 동거가 2.4%로 나타나 장남과의 동거율이 40% 미만으로 줄어들었음을 보여주며, 서병숙(1988)의 연구에서도 딸부부와 동거율이 11.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양의식을 조사한 연구들은 피부양자인 노인보다 자녀세대의 태도를 조사한 경우가 일반적인데, 임춘희(1987)의 연구에 따르면 장남은 동거보조형을 선호하는 반면 딸며느리는 별거보조형의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공보처 (1996)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62.4%가 아들이나 딸 누구나 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된다'의 14.8%를 크게 앞지르는 수치이다. 노인세대들도 자식의 부모부양 의무에는 77.6%가 찬성했지만 '반드시 장남이 부양해야 된다'에는 25.7%만이 찬성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의식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만, 누가 부양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식은 크게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비추어 볼 때 부양에 대한 의식은 좀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변해야 된다고 보며, 특히 피부양자인 노인들의 적응 능력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더우기 최근들어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같이 신체적 서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부양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부양방법에 관한 보다 적절한 대안이 시급히 모색되어야만 하는 실정이다. 또한 의식면에 있어서도 부양내용 및 부모자녀 상호관계에 관하여 기존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며 노인 스스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보다 현실적인 방향 제시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2. 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 및 효에 관한 가치관

사회가 급변할수록 세대간의 격차는 증가하고 있으며 노년기의 가족생활이 점차 고립된다는 점에서,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다른 세대와의 교류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 의식의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기 힘드므로 노인들의 전통적 의식과 신세대의 진보적 의식은 갈등적 상황을 야기시키기 쉽다. 윤현희 등(1994)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스트레스원은 가족관계로서, 노인들이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가족구조나 가치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 의식 중에서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효에 대한 기대감'은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 부모의 요구가 높으면 세대간의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고 가족의 전체적인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특히 아들에 대한 효의 기대감은 며느리와의 갈등을 초래하여 심각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전통사회의 변화가 부모자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노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건강한 성인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자녀의 양육기에는 부모에게 많은 희생과 투자가 요구되지만, 부모가 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자녀는 사회적 고립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녀들은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의 유지 여부에 상관없이 부모를 만족시켜 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Cicirelli, 1983). 자녀의 직접적인 부양 행위가 노년기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이러한 경향이 사라지고 있다. 즉, 노년기 부모자녀관계에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인 측면보다 정서적인 상호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성인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도 현실적인 부양 정도보다 상호간의 정서적 유대감인 것이다 (Atkinson 등, 1986; Brody, 1981; Krause, 1987; Mercier 등, 1988). 그리고 박경란·임춘희(1989)의 연구나 조병은(1990)의 연구에서도 자녀와의 동거여부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가족내 역할과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더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떠나 성인부모자녀로서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가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효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3. 관련변인

부모부양이나 성인부모자녀관계, 그리고 효도관에 관련된 변인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별이다. 예를 들면, 이동수(1987)는 가치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근대적이라고 하였고, 한은주·김태현(1994)도 가족가치관에서 노인의 성차를 지적하였다. 또 박경란·임춘희(1991)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단독가구 여자노인들은 자녀와 자주 만나는 것보다는 가끔 만나는 것을 더욱 원하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 세대간의 유대관계에서 접촉빈도보다는 접촉의 성격이나 내용을 더욱 중요시함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노인들은 경제적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노인들은 자녀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가 낮아 자녀와의 질적 관계를 좋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경란·임춘희, 1989). 이는 전반적인 성인부모자녀관계의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연주(1984)는 효에 관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고, 한은주·김태현(1994)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양만족도가 낮고 건강이 좋을수록 만족도가 높으며, 또 배우자 있는 노인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박재간·임춘식(1983)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립도가 낮을수록 전통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직업, 종교, 가족형태, 출생순위, 배우자 유

무, 건강상태 등)과 가족관계변인(가정생활만족도, 배우자와의 만족도, 자녀와의 만족도 등)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으며, 부모부양 및 효도관을 조사하기 위한 가치관 척도를 종속측정치로 이용하였다. 가치관 척도는 김송애(1991), 서병숙(1988), 성규탁(1994), 옥선화(1978), 허훈(1988) 등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제작하였으며, 전공자 6인의 안면타당도 검증을 거친 후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이 수정되었다. Likert식 5점 척도(1 = '매우 그렇지 않다' 부터 5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가치관 측정도구의 네가지 영역의 내용 및 신뢰도(Cronbach's α)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가치관 척도 항목

영역(α)	항목
부양의식 (.718)	1. 자녀는 부모님의 생활형편과 관계없이 경제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 2. 장남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부양 책임을 져야 한다. 3. 장차남이나 아들딸에 상관없이 누구든 부모의 부양에 책임이 있다.
부양형식 성인부모 자녀관계 (.843)	1. 자식은 부모와 동거하며 부양하는 것이 좋다. 1. 자기 자녀와의 관계보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 2. 결혼한 후에도 가정 및 사회생활문제를 부모님과 가장 먼저 의논함이 좋다. 3. 배우자보다 부모의 의견을 더 존중해야 한다. 4. 시집살이는 며느리가 우선적으로 참아야 한다.
효의식 (.805)	1. 부모님의 의견이 다소 무리가 있어도 따라야 한다. 2. 현대에는 물질적 효도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3.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자식이 성공하면 효도하는 것이다. 4.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데 효도이다. 5. 부모가 돌아가시면 1년간은 음주가무하지 않아야 한다. 6. 경제적으로 곤란한 형제를 무조건 도와야 한다. 7. 장남은 동생들의 생활을 돌보아야 한다.

2. 조사대상자 및 절차

조사대상자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년층으로 국한했으며, 면접조사에 관한 훈련을 받은 대학생 50명이 조사대상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60명의 면접대상자들 중에서 응답을 거부했거나 부적절한 반응을 보인 7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53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예비조사 및 본조사는 1997년 10월 초부터 11월 말일까지 실시되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인				빈도					
		빈도	%			빈도	%		
성별	남	107	42.3	직업	단순노무직	42	16.6		
	여	146	57.7		지역, 판매, 서비스	40	15.8		
연령	60-65세	72	28.5	사무직		22	8.7		
	66-70세	74	29.2		무직		149	58.9	
	71-75세	45	20.6			출생순위	말이	93	37.1
	76세 이상	49	21.7				중간	110	43.8
교육수준	국졸	144	57.4	가족형태			막내	48	19.1
	중졸	52	20.7		핵가족		122	48.4	
	고졸	40	15.9		확대가족	130	51.6		
	대졸	15	6.0		배우자유무	유	134	53.0	
종교	기독교	54	21.4	무			119	47.0	
	불교	80	31.7			건강상태	건강함	87	34.4
	천주교	37	14.7				(본인)	보통	114
	종교없음	79	31.3		불편함		52	20.6	
수입	50만원이하	163	64.4	건강상태	건강함		42	31.3	
	51-100만원	46	18.2		(배우자)	보통	62	46.3	
	101-200만원	31	12.2			불편함		30	22.4
	201만원이상	13	5.2						

IV. 연구결과

1. 부모부양 및 효 가치관의 일반적 경향

노인의 부양 및 효에 관한 가치관 척도의 점수는 <표 3>과 같다.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 때 전반적으로 보통(3점)을 약간 상회하는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경향을 나타내주고 있다. 노인들은 네가지 영역 모두 다소 전통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네가지 영역 중 효의식은 가장 근대적이라는 점에서 노인들의 효에 대한 기대와 가치가 상당 부분 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부양의식 역시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근대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부양보다는 평등적이고 자율적인 부양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경란·임춘희, 1989; 조병은, 1990).

그러나 부양형식에 있어서는 아직도 동거부양을 다소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성인부모자녀관계 역시 아직은 전통적인 의식이 다소 강하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인들은 대체로 자녀와의 정신적인 결속이 강하게 남아있기를 바라는 한편 부양이나 효도와 같은 전통적인 행위 유형에 있어서는 새로운 변화를 따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부모부양 및 효 가치관의 일반적 경향

영역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부양의식	3	3.29	0.68
부양형식	1	3.71	1.19
성인부모자녀관계	4	3.68	0.83
효의식	7	3.27	0.48
전체	15	3.49	0.56

2. 관련변인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1)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차이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의 부모부양 및 효도관 차이

변 인	N	부양 의식			부양형식			상·부모자관계			효의식			전 체		
		M	F/t	D	M	F/t	D	M	F/t	D	M	F/t	D	M	F/t	D
성별																
남자	107	3.16	7.50		3.70	-0.12		3.61	-1.23		3.31	1.24		3.44	1.20	
여자	146	3.39	***		3.72			3.74			3.24			3.32		
연령																
65세이하	72	3.06	11.54	C	3.46	6.58	B	3.44	5.76	C	3.14	3.84	B	3.27	14.00	C
66-70세	74	3.14	***	C	3.51	***	B	3.60	***	BC	3.25	*	AB	3.37	***	C
71-75세	52	3.43		B	3.73		B	3.80		AB	3.35		A	3.53		B
76세이상	55	3.67		A	4.29		A	4.01		A	3.40		A	3.84		A
교육수준																
국졸	144	3.51	16.39	A	3.85	2.11		3.86	6.99	A	3.32	1.33		3.64	9.92	A
중졸	52	3.19	***	B	3.61			3.52	***	AB	3.23			3.39	***	AB
고졸	40	2.87		C	3.35			3.26		B	3.15			3.16		B
대졸이상	15	2.76		C	3.73			3.57		A	3.28			3.33		B
수입																
50만원이하	163	3.46	11.33	A	3.87	3.90	AB	3.82	5.04	A	3.30	3.61	A	3.61	8.76	A
51-100만원	46	3.12	***	B	3.24	**	B	3.51	**	AB	3.26	*	AB	3.28	***	B
101-200만원	31	2.95		B	3.32		AB	3.28		B	3.08		B	3.17		B
200만원이상	13	2.87		B	3.92		A	3.55		AB	3.46		A	3.45		AB
직업																
단순노무직	42	3.17	9.76	B	3.31	2.35		3.57	2.94	AB	3.10	3.00	A	3.29	6.4	B
자영업자	40	3.11	***	B	3.73			3.60	*	AB	3.32	*	A	3.44	***	AB
사무직	22	2.77		C	3.55			3.32		B	3.15		A	3.20		B
무직	146	3.47		A	3.84			3.80		A	3.33		A	3.61		A
종교																
기독교	54	3.23	1.08		3.22	5.89	B	3.57	0.54		3.23	0.46		3.31	3.09	B
불교	80	3.30			3.64	**	AB	3.70			3.32			3.49	*	AB
천주교	37	3.19			3.92		A	3.75			3.28			3.53		A
무교	79	3.40			4.04		A	3.72			3.26			3.61		A
배우자																
유부	134	3.48	3.68		3.51	4.89		3.95	0.20		3.19	8.77		3.30	33.84	
무부	119	3.99	***		3.97	***		3.93			3.36	**		3.71	***	
가족형태																
핵가족	151	3.16	14.30		3.58	-2.08		3.65	-0.10		3.20	9.20		3.40	10.50	
확대가족	101	3.48	***		3.89	*		3.75			3.38	**		3.63	***	
건강																
건강함	87	3.18	6.72	B	3.93	2.80		3.66	2.06		3.33	0.99		3.52	2.71	
보통	114	3.24	**	B	3.54			3.61			3.24			3.41		
불건강함	52	3.59		A	3.73			3.89			3.24			3.61		

F/t는 일원변량분석 또는 t 검증 (성별, 배우자, 가족형태 변인)

D는 Duncan 검증의 결과부분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4>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의 부양 및 효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자 노인보다 여자노인이 부양의식에 있어 약간 더 전통적임을 알 수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별다른 성차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더 많은 집단에서 전통적인 의식이 두드러지며 특히 부양형식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더 전통적인 가치관이 나타나는데, 특히 부양의식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전통성이 더 높게 나타나며 역시 부양의식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도 전통성이 두드러지지만, 이는 자녀에 대해 투자한 만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로도 유추 가능하다. 직업은 무직자가 많아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나, 사무직은 근대성을, 무직은 전통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종교는 부양형식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는데, 기독교 신자가 비교적 근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비종교인이나 천주교 신자의 전통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보다 더 근대적인 가치관을 보이며, 핵가족보다는 확대가족의 노인이 더 전통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인의 건강 정도에 따라서는 부양의식에서만 차이를 보이는데, 건강한 노인일수록 더 근대적인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특히 부양의식에 있어 일부 계층의 경우 3점 이하의 상당히 근대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은 노인의식의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상호영향력을 통제한 가운데 그 관계를 탐색하여야만 보다 정확한 영향력을 밝혀낼 수 있으며, 고소득 계층의 전통성 역시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차후 좀 더 세밀히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족관계 변인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표 5>는 가족관계 변인에 따라 노인의 가치관을 분석한 결과이며, 가정생활만족도 변인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배우자와의 만족도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과거 시점에서 측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부양의식에서는 배우자와 불만족한 노인의 전통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부양 형식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노인의 경우에 더욱 전통적인 동거 부양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원만한 가족관계가 전반적인 동거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성인부모자녀관계나 효의식도 동일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자녀간 만족도 변인의 경우에도 배우자 변인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데, 부모자녀관계에 만족한 노인들이 더 전통적인 경향을 보여주며, 효의식 역시 마찬가지로 결과였다. 따라서 노인들의 가치관은

<표 5> 가족관계 변인에 따른 노인의 부모부양 및 효도관 차이

변 인	N	부양의식			부양형식			성인부모자녀관계			효의식			전 체		
		M	F	D	M	F	D	M	F	D	M	F	D	M	F	D
배우자	불만족	100	3.51	9.39 A	3.95	6.92 A		3.93	8.43 A		3.33	8.43 AB		3.68	13.41 A	
	보 통	121	3.15	*** B	3.43	*** B		3.48	*** B		3.18	*** B		3.31	*** B	
만족도	만 족	32	3.13	B	4.08	A		3.69	A		3.42	A		3.57	A	
부모자녀	불만족	40	3.38	0.58	3.83	0.33		3.32	6.08 AB		3.32	5.07 AB		3.59	3.39 AB	
	보 통	181	3.26		3.67			3.58	** B		3.22	** B		3.43	* B	
만족도	만 족	32	3.33		3.78			4.09	A		3.50	A		3.68	A	

F는 일원변량분석, D는 Duncan 검증의 결과 부분임.

* $p < .05$ ** $p < .01$ *** $p < .001$

주변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고 특히 부양이나 효에 관한 가치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하는 것보다 주변 가족의 특성에 오히려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가치관은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는 것이 자발적이기 보다는 적응적인 행위로 판단되며 가족관계의 질에 따라 쉽게 회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노인 정책은 단순한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노인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보호하고 치료하면서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특히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노인들의 행복감은 자녀와의 정서적인 질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부양과 효에 관한 노인들의 가치관을 조사하여 노인들이 가족과 사회의 변화 속에서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사대상자 253명의 노인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양 및 효에 관한 노인들의 일반적인 가치관은 다소 전통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효의식은 보다 근대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노인들의 효에 대한 기대와 가치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양의식 역시 보다 근대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부양형식을 볼 때 노인들은 아직 동거부양을 선호하고 있으며 또 자녀와의 결속도 아직은 강하게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보면, 먼저 남성보다 여성이 부양의식에 있어 약간 더 전통적임을 알 수 있었고, 고연령 집단일수록 전통적인 의식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특히 부양형식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더 전통적인 가치관을 보였는데, 특히 부양의식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도 전통성이 높게 나타났다지만 대체로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전통성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부양의식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직업에 있어서는 사무직의 근대성이 두드러지며 무직의 경우 전통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

교는 부양형식에 있어 기독교 신자가 비교적 근대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비종교인이나 천주교 신자의 전통성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보다 더 근대적인 가치관을 보였으며, 핵가족보다는 확대가족의 노인이 더 전통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건강한 노인일수록 더 근대적인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가족관계 변인에 따라 노인의 가치관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양의식에서는 배우자와 불만족한 노인의 전통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부양 형식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노인의 경우에 더욱 전통적인 동거 부양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원만한 가족관계가 전반적인 동거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성인부모자녀관계나 효의식도 동일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자녀 만족도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어, 부모자녀관계에 만족한 노인의 경우 더 전통적인 경향을 보여주며 효의식 역시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가치관은 주변 가족의 특성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노인들은 대체로 자녀와의 정신적인 결속이 강하게 남아있기를 바라는 한편 부양이나 효도와 같은 전통적인 행위 유형에 있어서는 새로운 변화를 따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갈등적 상황을 적절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자립하면서 정신적으로 자녀와의 결속을 강화하는 새로운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노후에 관한 물질적, 정신적 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이를 배려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노인들의 가치관이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여 변화하는 것은 자발적이기 보다는 적응적인 행위로 판단되며, 가족관계의 질에 따라 쉽게 전통성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한 노인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이들의 가족관계를 강화시켜 주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를 위하여 가족관계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노인교육의 기회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성인부모자녀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앞으로의 노인 정책은 단순한 구호나 일률적인 정책보다는 개인의 가족관계와 정서적 질을 고려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

들에게 변화를 강요하기 보다는 노인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보호하면서 서서히 변화가 수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기관 등에서는 가족상담이나 치료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노인복지 개념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공보처 (1996).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 김송애 (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경란, 임춘희 (1989). 노년기의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생활만족도. *인제논총*, 5, 129-158.
- 박경란, 임춘희 (1991).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생활적응. *인제논총*, 7, 301-332.
- 박재간, 임춘식 (1983). 노인학교 노인교실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 노인문제연구소.
- 서병숙 (1988).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생활만족도 및 가족의 교류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성규탁 (1994). 현대 한국인이 인식하는 효: 척도와 차원. *한국노년학*, 14, 50-68.
- 송현애 (1986).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자녀관계에 대한 조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옥선화 (1978). 도시주부의 효도에 대한 가치의식에 관한 연구. *성심여대 논문집*, 9집.
- 윤현희, 김명자 (1994). 남녀노인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적응감 연구. *한국노년학*, 14, 17-32.
- 이동수 (1987). 가족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52권.
- 이영하 (1975). 노인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방안. *공주사대 논문집*, 13.
- 이연주 (1984). 한국가족의 변화에 관한 일 연구-태도 조사를 통하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 101-112.

- 임춘희 (1987). 분거한 도시 장남부부의 부부의식 유형.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병은 (1990). 부모자녀간의 결속도와 노부모 인생 만족도. *한국노년학*, 10, 105-124.
- 한국인구보건원 (1985).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서울: 한국인구보건원.
- 한은주, 김태현 (1994).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부양만족도와 부양부담도. *한국노년학*, 14, 95-116.
- 허 훈 (1988). 한국대학생의 노부모에 대한 가족부양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노년학*, 8, 89-106.
- Atkinson, M., Kivett, V., & Campbell, R. (1986).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 examination of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41, 408-416.
- Brody, E. (1981). Women in the middle and family help to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21, 471-478.
- Cicirelli, V. (1983).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s: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815-825.
- Krause, N. (1987). Chronic strain, locus of control and distress in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2, 375-382.
- Mercier, J., Paulson, L., & Morris, E. (1988). Rural and urban elderly: Differences in the quality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37, 68-72.

韓國老年學研究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1997, Vol. 6, 67-87

Retirement Choice and Its Relation to Depression

Yongjin S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Content

- Abstract
- I. Introduction
- II. Method
- III. Results
- IV. Discussion
- Reference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investigate the short-term effect of retirement choice on post-retirement

A part of this article was presented at the 49th Annual Meeting of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Washington, D. C., November 21, 1996. Correspondence concerning this article should be addressed to Yongjin Son, Gerontology Institut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Massachusetts 02125, USA. Electronic mail may be sent via Internet to son@umbsky.cc.umb.edu.